

지구촌 숲 지키기 사진전, 기후변화 씨네톡과 함께 2020세계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행사

2020.06.12

- 사진전은 서울역(6.17~21), 기후변화 씨네톡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(6.18)에서 개최

-

□ 산림청(청장 박종호)은 세계사막화 및 가뭄의 날(6.17)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*) 사무국과 함께 지구촌 숲 지키기 사진전 및 기후변화 씨네톡을 개최한다.

*유엔사막화방지협약[UNCCD :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]

○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사무국은 '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7일에 전 세계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.

○ 올해에는 대한민국이 기념식을 주관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이를 온라인 기념식으로 대체하되 소규모 오프라인 행사(사진전, 씨네톡)를 병행한다.

□ 지구촌 숲 지키기 사진전은 6월 17~21일까지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개최되며 NGO(비정부 기구)들의 사막화방지 활동, 세계산림총회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.

○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다양한 NGO(비정부 기구)들이 기여해온 사막화방지 분야의 우수한 활동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.

○ 이와 더불어 서울에서 개최될 제15차 세계산림총회('21. 5. 24~28)를 알리기 위해 제14차 세계산림총회의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을 함께 전시한다.

□ 기후변화 씨네톡은 6월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며 영화 감상,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.

○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영화인 《Abundance on a dry land》가 상영되며, 이어 진행되는 시민들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, 올해 사막화 및 가뭄의 날 주제(Food,Feed,Fiber;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과 소비)와 관련된 녹색 소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푸른아시아 누리집(www.greenasia.kr) 참고 또는 전화 문의(02-711-6675)

□ 2020년 세계사막화 및 가뭄의 날 온라인 기념식은 UNCCD 누리집,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 : Facebook, YouTube) 등을 통해 방송된다.

○ 기념식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, 산림청-UNCCD가 공동 제작한 `세계사막화 및 가뭄의 날 토크쇼'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UNCCD 누리집(www.unccd.int) 참고

□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"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막화 및 가뭄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"라며,

○ "국민들이 사막화와 가뭄을 막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, 산림청도 사막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라고 말했다.